

## 학부모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라는 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학급운영은 교사, 학부모, 학생들 서로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때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 기회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을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0% 정도만이 학부모를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 또한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국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음을 설명해 준다. 이번 호는 현재 학부모와의 소통과 참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본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해 볼 만한 학부모 참여와 소통의 방법들을 나눠 보기로 한다.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급’ 만들기 ④

# 민주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학급운영

교실밖교사커뮤니티(eduict.org) 중등학교운영연구팀





사례 1

의례적인 만남

3월 학부모 총회. 아이들을 만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학부모님들(거의 어머니들)을 대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나자마자 학부모 대표와 어머니회 대표를 뽑아서 학교 전체 모임 자리에 가시게 했다. 먼저가 봐야겠다는 어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그 뒤 어머니 회의를 끝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려고 남은 어머니들과 몇 마디 나눴다. 이게 전부다.

사례 2

“내 아이는 달라요!”

한 아이가 지각, 복장 등으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아이 집에 전화를 걸어 본다.

“OO가 참 예쁜 아이지요, 그래서 퍼머나 액세서리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이해가 되고, 참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학교 규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OO만 봐 주자니 형평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답변, “말씀 다 끝났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 하지요, 우리 집이 본래 자유분방해서요.”

“...”

사례 3

‘혹시 촌지 바라시나?’

올해는 아이들 가정과 더 친숙하고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학부모들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뇨,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저 요즘 아이의 학교 생활도 말씀드리고, 집에서는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부모님은 뭐 궁금하신 일이 없으신가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죠? ... 저 선생님, 빠른 시일 안에 꼭 한 번 찾아 뵙게요.”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공식적인 만남 자리는 학년 초에 있는 학부모 총회가 거의 유일하다. 그 외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아이가 결석을 했을 때, 학부모가 급식도우미로 참여하실 때, 전학을 할 때 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학부모회나 어머니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을 가끔 만나는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와의 대화를 어설프게 시도하다 보면 <사례3>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생활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갈수록 높아지는 학부모들의 정보 욕구와 권리의식에 반하여 참여와 소통의 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불신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스스럼없이 학교와 담임 교사를 찾게 될까. 실제 담임교사들이 전화번호를 적은 통신문 등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라’고 나름의 기회를 만들어도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는 경우는 많지 않다. 거기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여전히 촌지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학교에 빈손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게 되면 뭘 들고 가야 할지 갈등하는 시간이 길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를 다녀온 뒤에도 ‘내가 잘했나’ 하는 걱정과 마음이 편치 않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평소 친구들과 다툼이 잦아서 지적 당했을 경우에는 괜한 죄책감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는 것을 더욱 꺼려한다. 맞벌이 학부모는 생활에 쫓겨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정성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어쩌다 이야기를 나눠도 짧은 대화 시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불편하

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교사 대부분이 수업과 업무에 쫓겨 교재 준비를 하기도 하루가 빠듯하다. 교사는 학부모를 만나는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어렵게 낸 시간도 마음이 급해서 여유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힘들다. 또한 어렵게 마련된 자리에서 교사들은 고민 끝에 이야기를 꺼내지만 학부모의 자세로 인해 곧 실망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실컷 얘기를 했는데도 학부모가 방관적이거나, 너무 자기 아이만을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을 살피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세를 보이면 교사는 난감해진다.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교사일수록 학부모와의 만남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진다.

### 학부모 참여와 소통 기회 어떻게 마련할까?

#### 편안한 마음으로 학부모를 만나자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대화하기 전에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학부모는 교사가 자기 아이를 꼼꼼히 관찰하고, 그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중·고교 담임이 아이들을 접하는 시간은 조·종례 시간과 담당 교과 시간, 그리고 간혹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청소시간 정도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교사가 늘 아이들 옆에서 부모처럼 보살펴 주길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교사에게는 심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학급운영 방침이나, 조희시간 활용, 지각 문제 등에 대한 교사의 의견과 개별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릴 때, 교사가 갖는 부담감은 더욱 커진다. 교사는 때로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이럴 바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 글을 잠시 읽어 보자.

합의란 모든 구성원이 동의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닙니다. 합의는 과정인 것입니다. 목적과 비전이 뚜렷하게 제시되었는가. 구성원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였는가. 구성원이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는가. 구성원들이 흡족할 만큼 참여하게 했는가. 결국 합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린 정보와 지식, 서로를 존중해 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세일즈가 아님!) 기술입니다. -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중에서

학부모를 만난 후 학급운영의 방침이 바뀔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목표와 그것의 설정 이유, 그리고 학급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시켜 주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서로의 이견을 표현할 기회가 있었는가 없었는지도 따져 본다. 그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학부모와도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고, 때로는 주장을 통해 설득해 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교사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결론을 찾기 위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럴 때 교사가 갖는 마음의 부담도 줄어든다.

#### 분기당 1회 정도 공식적 모임이 좋다

학부모가 마음 편히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학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조건이라도 분기당 1회 정도의 편안한 공식적인 모임을 갖도록 해보자. 물론 시기별로 적절한 주제와 안건을 가지고 만나도록 한다. 학교에서 한 시간 정도 협의 시간을 갖고 그 후 아이들과 동행하여 근처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라면 좀 더 편



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때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고 그 외 필요한 준비물들은 교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도 역시 개별적으로 내 아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다. 이럴 때엔 면담이 가능한 시간을 미리 알린 후에, 편안한 시간에 면담신청을 받아서 하면 된다.

교사는 학년 초 아이들을 통해 교사의 연락처와 시간표를 가정에 보내는 것도 좋다. 간단한 명함(학교전화와 내선번호 혹은 부서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간표 등을 적은)을 만들어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학년 초 아이들로부터 자기소개서를 받을 때 학부모 설문지도 함께 보낸다. 이 설문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주요 관심사나 여러 가지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가정방문, 전화통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자**

가정방문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물론 많은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맞벌이 가정의 적지 않아서 어려운 조건이지만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선은 학년 초 가정방문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모둠별로 구성을 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기적으로는 학년 초나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방문을 할 때는 부모님들과 미리 시간 약속을 한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접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간적인 제약이나 대면이 불편한 관계의 학부모와는 직접 대면이 아닌 다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대화가 대표적인데 이 때 <사례3>과 같이 학부모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학급 통신문을 통해 본인의 교육방법과 상담의 기회 등에 대한 예고를 충분히 하도록 한다. 학급 통신문이

나 교사의 편지글 등을 통해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학교와 학급의 크고 작은 행사 일정과 계획, 평가, 학급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상 등 다양한 내용을 적어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의외의 사소한 부분에서 생긴 오해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매달 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분기별 1회 정도로 한다. 지난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참가 방법, 가정에서의 아이들 지도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로부터 얻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즘 학부모들에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간단한 소식 알림도 괜찮은 방법이다. 특히 소풍, 시험, 등학교 시간 변동 등의 상황을 간편하고 빠르게 알려 줄 수 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답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의 대화 창구가 늘 열려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준다.

그 외 이메일을 통한 대화나 학급 카페, 학급 홈페이지 운영 등의 방법이 있다. 이메일로 대화를 하는 학부모 수가 많지는 않지만 메일을 자주 활용하는 학부모들과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급 카페나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선부르게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는 학급카페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좋다.

학교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인식의 한계나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원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적극 참여한다면 바람직한 학급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